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오즈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번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ort 건너편,
 (파비아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TOP Lawn Maintenance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Suwanee ORTHODONTICS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Elevate Your Smile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ortho)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만천홍
 T. 770.454.5640
 592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 십자가, 선상 • 금, 은, 주문제작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 리-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 2098호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발행인: 이영석 세례자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오후 1시 (영어미사) 매일
 첫째, 셋째 주일 봉헌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마르코 14,12-16.22-26>

-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20분 전
-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월: 휴무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본당신부
 이영석 세례자 요한
 Johann Young-seog Lee, S. J.
 20seog@hanmail.net

† 사목회장
 성정창 풀젠시오
 Fulgentio Jeong Seong
 470-296-1030
 kmccga.seong@gmail.com

성 가 입당: 164 봉헌: 212/510 성체: 163/164/169 파견: 201
 제 1 독서 탈출기 24,3-8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화 답 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제 2 독서 히브리서 9,11-15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14,12-16.22-26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신앙체험 수기 수상작

고향

● 최우수상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느~은 시~인세~”
 어릴 적 나는 종종 만취하신 아버지께서 첫 소절만 부르다 못다 부르시곤 하시던 노래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동족 상전의 비극 6.25! 실향민! 내 머리에 깊이 박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원가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온 적도 있다. 여덟 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두 분 누님들 손에 자랐고, 압록강에서 뗏목을 타고 물놀이를 하셨다는 아버지는 결혼 후 한창 재롱둥이던 6살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길어야 한 달이면 돌아오지 않겠냐는 말을 남긴 채 인민군으로 차출되어 전선에 서게 되었다.

미군에 체포되어 감금되었던 거제도 수용소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으로 포로들의 몸에서 떨어진 이를 빗자루로 쓸어 내셨다. 휴전 후 포로 교환으로 북한에 되돌아 갈 수 있었지만, 해방 후 경험하신 공산당이 너무나 싫어서 남한에 있기를 결정하실 때에는 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한 생이별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통일이 막연하여 애타는 세월을 보내다 어쩔 수 없어 남한 아가씨와 결혼하셨지만, 5년이나 아기가 없었다 하셨다.

아버지 마흔 되신 해 운동네가 떠들썩하게 태어난 딸이 금보다 귀한 것 없어 '금딸'이라 부르셨다. 아버지가 나들이 가시면 의례히 따라 나서던 어린 금딸은 아버지 친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시원한 웃음꽃이 핀 아저씨들의 칭찬 세례와 더불어 주머니까지 두둑해 저 아버지 손잡고 집에 가는 길은 엄마한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을 기대로 신바람 날리곤 했다. 조용한 성품에 느지막이 얻은 딸자랑에 쑥스러 하시던 아버지 별명은 새색시. 그러나 아버지는 종종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셨고, 한겨울 어둔 밤 공공 열어놓은 거리에 쓰러져 잠들어 계신 적도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얼마나 싫어 했는지, 어린 날의 금딸은 흑시라도 누가 볼까 봐 아버지를 감추고 싶어했다.

유수 같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결혼한 나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다. 생김 모습도 언어도 풍습도 다른 머나먼 타국, 앨라바마 시골에서 남편이 이른 아침에 출근하면 외부 출입을 못한 채 집안에서 7개월된 어린 딸과 낮 설음을 익히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멀리 신작로에 자동차만 이따금 씩씩 달릴 뿐 새 소리도 벌레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리는 한적한 동네, 사랑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몰랐더니 차가 사랑이라고 했다.

영어를 배우던 랭귀지 스쿨에서 어느 날 각 나라의 문화 차이가 있었다.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있던 한복을 다려서 곱게 입었다. 한국 차레가 되자 몇몇 주부들이 잔뜩 긴장하고 무대에 섰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우리들은 여러 나라의 관객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웃 아기 진달래 ~”
 너나 할 것없이 참을 수 없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로 피아노 반주만 덩그러니 연주되고 그렇게 무대를 내려오고 야 말았다.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홍수처럼 밀려오던 어느 날, 통절하게 떠오르던 아버지!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취하여 눈물 흘리시던 내 기억 속의 부끄럽기 짝이 없던 그 모습, 나는 처음으로 내가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민간인이 하루 아침에 인민군이 되어 손에 들려진 낫선 총을 잡고 전쟁으로 내몰려진다는 것. 소낙비처럼 쏟아지던 총알 사이를 뛰어 어디든 몸을 숨겨야 했던 그 상황. 한여름 웅덩이에 벌레가 우글우글해도 허겁지겁 그 물을 들이키셨던 타는 목마름과 극심한 허기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것, 어쩌면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막막함, 가진 것이라곤 입은 옷 한 벌,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낯선 남한 땅에서 삶을 극복해 내셔야 했던 그 참혹함이 현실이었던 날들.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를 기도 중에 안았을 때 뼈 속 깊이 아려 오는 아픔, 전쟁의 엄청난 공포,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온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한, 발버둥 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계의 처절함! 그러나 강인한 책임으로 살아 내셔야 했던 삶을 향한 투쟁! 그 모든 것을 쓰디쓴 소주잔에 담아 이기시려 했던 아버지의 몸부림!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멀어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고향을 그리는 만리 타향에서, 가까워도 갈 수 없는 실향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비로소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옆드려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접하셨던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 사상을 접하시고, 술 담배 할 수 있는 천주교회가 좋다 시며 입교하신 지 30여 년. 요셉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교우들과 점점 깊어 가는 형제애를 나누시며 성가를 부르실 때는 유난히 부끄러워 얼굴이 불그레해 지시곤 하셨다. 치매 예방으로 엄마와 즐기시던 화투는 두 분이 목주기도 드리신 후에 스스로에게 주었던 포상이었고, 일 년에 한 두번씩 성지순례도 다니시며 날마다 어제보다 행복하다고 하시던 어느 날, 담배를 즐기시던 아버지께 갑자기 찾아온 말기 폐암 진단. 호스피스 병동은 하늘로 가는 대기실이라 하시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초연해 하셨다. 남겨지는 엄마를 위해 일일이 정리를 다 하시고 깊고도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금딸의 가슴에 새겨 두시곤 두 달도 채 안 되어 홀연히 떠나셨다.

이제는 고독하고도 고단한 삶의 십자가 내려 놓으시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북한의 가족들과 한껏 해후하시지 않으셨을까. 세상에 돌도 없는 아버지의 금딸과의 재회도 언젠간 이루어 질 그 곳. 더 이상의 향수병이나 그리움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우리들의 본향. 오늘도 천국을 향하는 마음은 자랑스런 나의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쁨과 희망으로 설렌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김송옥(데레사)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민병숙(라파엘라) 박덕자(빅토리아) 박정자(데레사) 박평하(요한) 유옥희(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이창옥(크리스티나) 조경희(글라라) 채중현(아오스딩) 최대일(프레드릭)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1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고영호 770-827-9987
성모회 이남수 770-310-4546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박순기 678-793-5881
레지오 마리아 왕희숙 352-359-4283
성령기도회 오영숙 404-518-5881
울뜨레아 이경환 678-713-4650
M.E. 손영덕 678-896-1837
C.L.C. 이형주 404-409-1220

대건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 대상 :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 기간 : 2021년 8월14일~12월11일 (16주간)
- 수업 시간 :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 특별 과 목 : 서예/한국화, 미술, 한국무용,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교내행사 :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 일 자 : 5/1~5/9 (추가등록:8/14까지)
- 등록 금 :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교지\$10포함)
- 등록 장소 :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 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SO GOOD (파티, 웨딩드레스 전문점)



Duluth 매장: 678.474.7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www.sogoodbridal.com
 www.sogoodbb.com
 f g+ p in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 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최고의 보험회사와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 병 들었을 때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보험
 ✔ 확정이자로 10년째 원금의 2배 보장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2021년 AA 기금 납부 현황 (5월 30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900

누계 약정액: \$22,820

금주 납부액: \$220 누계 납부액: \$30,000 달성율: 51.8%

2021 AA 기금 금주 납부자: 7명

김경숙 박해영 손철영 왕복실 이상엽 장민재 정경모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AA 기금 약정을 부탁드립니다.

< 주일 미사 관면 해제 >

애틀랜타 대교구는 코로나 기간 지속한 미사관면을 성령강림대축일(5월2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신체 건강한 교우분들은 대면 미사 참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장례 미사 >

故 나명희(올리바)님의 장례 미사가 5월 28일(금) 낮 12시에 본당 신부님 주례로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 2021 페루 선교 후원금 모금 >

페루 선교 후원금 모금을 주일 오전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실시합니다.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주기도 >

교황님께서 5월 성모 성월 한달간 COVID-19 종식을 위한 전 세계 신자들의 목주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미사 30분전에 목주 기도를 봉헌하니 교우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함께 여기서

< 마르코 14,12-16.22-26 >

배영길 베드로 신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나누며,
사랑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

상상이 아닌,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단연 성체를 받아 모실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형제들이면 누구나 매 주일 미사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성체를 받아 모시러 성전 중앙복도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줄지어 선 순간에 마음이 뛰고, 영성체를 한 그 짧은 순간에는 온몸 가득히 평화로 충만되는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의 크기가 클 수록, 인간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가 깊을 수록 성체가 주는 위로의 크기도 커지고 주님과 친교는 더욱 가까워 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 산책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 마르코 14,12-16.22-26 >

그러한 체험을 통해 저의 신앙의 응답은 언제나 완성형의 응답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고백이며,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그 의미가 매번 새롭게 받아 드려 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살아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복음을 찬찬히 따라 가면 죄 많은 저의 구원을 위해 제사의 형식 안에서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해석하게 하시고 신앙의 상속자로서 반복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성체성사를 통하여 재현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일치 할 수 있도록 초대하셨음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 위대한 선물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지 못 하게 한 코비드 박해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성당 문을 들어서면서 새 신자들에게 들려 준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 해 봅니다.

“그리스도 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례의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 하시는 바로 그분 이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성찰

팬데믹 기간동안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시지 못한 때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배운 미사관면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가요?

우리들의 정성 (2021년 5월 30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274명	
특전 미사	49명	오전 8시 30분	73명
오전 10시 30분	152명	영어 미사	-명
청소년 기금	\$ 1,000.00	감사헌금	\$ 600.00
교무금	\$ 5,140.00	주일헌금	\$ 4,139.00
온라인 교무금	\$ 1,200.00	온라인 주일헌금	\$ 347.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1년 5월 30일)

강익수 (6)	서미영 (1~12)	이안나 (6)
김남우 (5)	서영규 (3~4)	이진승 (5)
김성강 (6)	손창욱 (5~6)	이천균 (4~5)
김재성 (5)	신승재 (5)	이천균 (4~5)
김중환 (5)	왕복실 (3)	장민재 (6)
릭스메리 (7~12)	왕일모 (5~6)	정경모 (6)
박남철 (1~5)	이김애자 (5)	최춘명 (1~4)
박영섭 (7~12)	이민정 (5)	
박해영 (5)	이성철 (5)	

금주 후원금

청소년 기금	성모회
Covid-19 Fund	-
감사헌금	백현숙 이천균
Angela Fund	-

미사 위생 지침

	6/6	6/6	6/8	6/9	6/10	6/11	6/12	6/13	6/13	6/15	6/16	6/17	6/18	6/19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체온측정 1 (정)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균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균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체온측정 2 (부)	-	-	-	-	-	-	-	-	-	-	-	-	-	-
안내/방역 1 (정)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안내/방역 2 (부)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안내/방역 3 (부)	서상희	원동훈	-	-	-	-	-	서상희	원동훈	-	-	-	-	-
안내/방역 4 (부)	-	남해원	-	-	-	-	-	-	남해원	-	-	-	-	-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6/5 (토) 오후 7:00	고승찬	허재 신경아	-
6/6 (일) 오전 8:30	서정원	윤춘호 윤영미	-
6/6 (일) 오전 10:30	박줄리	손창욱 노우정	-
6/6 (일) 오후 1:00	Gabe Choi	Chris Shin	-
6/12 (토) 오후 7:00	고승찬	허재 신경아	-
6/13 (일) 오전 8:30	이진화	이종길 이은경	-
6/13 (일) 오전 10:30	이경환	이국진 이정란	-

예수회 후원회 줌 강의 안내

- 6월 7일 (월) 밤 9시- 이곳 시간
정제천 신부-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기
- 6월 14일 (월) 밤 9시- 이곳 시간
손우배 신부 -일상에서의 영적 위로와 실망

줌 ID: 979 720 4403W
비밀 번호: 1https://us02web.zoom.us/j/9797204403?pwd=WEtHK0llaWZmTWtmTnhPUiVqRmlGUT09

◆성모회 물품 판매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를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판매장소- 주차장내 장터 판매대

나의 순교 일지 2021년

일시: 2021년 11월 27일 (대림 1주일 전날)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을 맞아 일상 안에서 ‘작은 죽음’을 살아가며 ‘순교 영성’을 살아 가기를 초대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림 1주일) 교중 미사 때 ‘순교 일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문의: 이숙자 (678-665-3882)

제 21차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주제: 자캐오야 얼른 내려 오너라
지도: 정만영 콜베 신부
일시: 8월 8일 (일) - 12일 (목) 4박 5일
장소: St. Ignatius House
참가비: \$530 (인원: 선착순 22명)
문의: 이형주 스텔라 (404-409-1220)
박철민 리나 (404-510-4604)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제 2 차 성체 신심 세미나

주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 6,48),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일시: 6월 27일 (일) 오후 7:30-10:00
6월 30일 (수) 오후 7:30-10:00 (세미나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있음)
방법: zoom
지도: 서울 가톨릭 대학교 교회법 대학원 교수 지용식 마태오 신부, 이동식 발다살 신부 (동남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지도사제) 및 봉사자
대상: 모든 교우
참가비: \$40.00 (선착순 100명) (PAYABLE TO: “KCCRSC-SE”)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신청 마감: 6월 20일 (선착순 100명)
문의: 이영숙 테라사 (770-625-0787)
오영숙 수산나 (404-518-5881)
주최: 미 동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가을 학기 성서 그룹공부반 모집

수업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Zoom)
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서
문의: 이계진 (678-510-6646)
이은경 (404-384-2236)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

1. 은총쓰기반 2. 목상 컬러링반
3. 원예반(선착순 20명)
* 모든 교재및 부재료 무료 제공
모집기간: 5월 16일부터
클래스 시작: 6월 첫째 주부터
문의: 김유니스 (770-500-7007)

한국 천주 교회사 공부반 모집

모집기간: 5월 16일~6월 20일
수업방식: Zoom으로 시작
문의: 지혜정 (770-380-1327)
adelabig4@gmail.com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뒤쫓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도라빌의 저희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사랑 가득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소서. 그 마음으로 쉬는 교우를 찾는 순간까지,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는 평신도 사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겸손한 마음을 나눠주소서. 여러가지 사연으로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쉬는 교우들이 저희의 작은 실수로 인해 당신한테서 더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용서를 청할 것이 있으면 먼저 청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 길 잃은 양을 찾는 이 험난한 여정에서 혹시나 잃어버렸을 지도 모를 저희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과 하나 되었던 세레 때의 약속과 감동을 상기시켜 주시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쉬는 교우들과 함께 당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와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주님의 평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보살핌 덕택에 큰 불상사 없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4월28일, 애틀랜타 대교구는 코로나 기간 지속한 미사관면을 성령강림대축일 (5월2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성당 교우분들의 백신접종 현황을 살핀 후, CDC의 방역수칙과 교구의 전례권고를 바탕으로 본당 미사전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 드립니다.

- ◆5월22일 성령강림대축일 미사부터 신체건강한 교우들은 대면 미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미사참석자는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본당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 ◆성체는 입으로도 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손 영성체가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중 성가 합창은 계속 중지하며, 교우간의 신체접촉 또한 계속 금지합니다.

이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과 기타 고위험군(65세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위험을 느끼시는 분 등)의 교우분들은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